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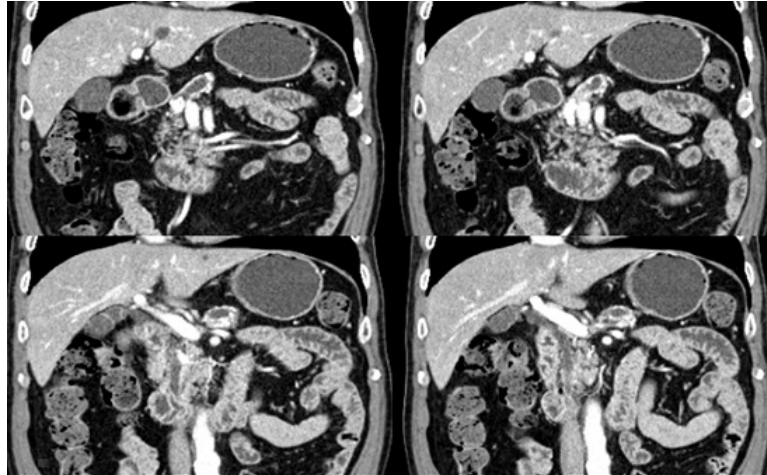
Acute suppurative pancreatic cholangitis caused by acute migration of pancreatic duct stone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Inh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ncheon, Korea

*Min Jeong Kim, Seung Ho Lee, Jin-Seok Park, Seok Jeong, Don Haeng Lee

Background: Chronic pancreatitis is an inflammatory condition for a long time, which turns into parenchymal atrophy and calcification, impairs endocrine and exocrine functions. Moreover, its structural and functional changes cause different complications, for example, pseudocyst, fistula formation, or benign biliary stricture. We experienced a case of acute suppurative cholangitis caused by migration of pancreatic duct stone into common channel.

Case Report: A 75-year-old man was admitted to Inha University Hospital due to fever with pain in right upper quadrant of abdomen for 3 days. Four years ago, the patient has been diagnosed as a chronic pancreatitis with multiple pancreatic stones on the abdominal CT scan. On admission, abdominal CT revealed diffuse dilation of biliary tree owing to imperforation of pancreatic stones migrated from upstream side of main pancreatic duct into the ampulla of Vater. He was diagnosed with acute suppurative cholangitis based on serum laboratory findings and CT findings.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with needle knife infundibulotomy was performed to remove the impacted pancreatic stones. Abdominal pain subsided dramatically right after ERCP and intra-venous antibiotics were administered for a week.



화농성 간농양의 임상양상과 균동정 및 항생제 감수성 결과

을지병원 내과 소화기분과

*송치우, 손병관

목적/배경: 화농성 간농양에서 E.coli 가 과거에는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들어 Klebsiella pneumoniae 배양 빈도가 높아지고 다제내성균 등장이 보고됨에 따라 항생제 선택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방법:** 본 연구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단일 종합병원에서 화농성 간농양을 진단받고 배농술 시행받은 9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의 유무, 혈액검사(C-반응 단백 수치, 백혈구, 간기능 검사 등) 및 농양의 위치와 크기, 혈액과 농양에서 각각 배양된 원인균주와 항생제 감수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평균 나이는 62.3세, 평균 입원기간은 17.2±9.5일이며 연령별, 기저질환의 유무, 농양의 크기에 따라 치료기간의 차이 및 항생제 감수성에는 차이는 없었다. 배농 결과 92.4% (85/95)에서 균주가 동정되었고 Klebsiella pneumoniae가 65.2%로 가장 흔하며 E.coli는 15.2%였다. 농 배양검사와 혈액배양 검사 모두 동일하게 배양된 경우는 32.95% (28/85)이며 Klebsiella pneumoniae 중 2에서 ESBL (Extended-spectrum beta-lactamase) 내성이 발견되어 이들은 감수성결과에 따라 imipenem으로 전환하였다. 배농술과 항균제 치료 후 완치율은 96.7% (89/95)이며 치료 중 사망은 3.3% (3/92)였다. **결론:** 본 연구결과 간농양의 가장 흔한 원인 균은 Klebsiella pneumoniae였고 일부 기존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세파로스포린 계열 등 여러 항균제에 내성을 보이는 ESBL 양성 Klebsiella pneumoniae가 동정균 중 2.1% (2/95)를 차지하고 있어 기존의 항균제 선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화농성 간농양 환자의 치료에 있어 광범위 항균제 치료와 동시에 초기에 적극적인 배농술을 시행하여 균 배양 및 감수성 검사를 확인하여 선택한 항균제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